

태을주는 생명과를 먹는다는 뜻이네

증산선생이 제자 안내성에게 태을주를 전하였다(도전5:263)고 하였네. 태을주는 이제 안내성에게 넘겼으니 안내성이 마지막으로 한 일을 잘 보시게.

박기정의 아내가 감나무를 심고 있는 안내성을 보고 "아니 선생님, 금방 때 된다고 한 양반이 무슨 감나무를 다 심으세요?" 하며 의아해 하거늘 안내성이 "아, 심어 놓고 불라고 그러지" 하고 대답하니라(도전10:130) 라고 했지. 이는 태을주의 권한이 감나무에 다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네. 감나무는 성경상의 감나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며 곧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을 뜻하네.

감나무가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될 말인가 할 결세. 격양유록에 나오는 감나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갈 결세. "천지합운출시목(天地合運出柵木): 천지의 기운이 합하는 운(중전운=지천태운)에는 감나무가 나온다. 계통론", "시목출성동서교주(柵木出聖東西教主): 감나무가 성인으로 나오니 동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이다. 국물론"

이것도 두 사람(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여자)이니 결국 마지막 대두목으로 귀결되는 것이네. 그러니 대두목이 마지막 이긴자요 진인(구세진인 구세주)이요 정도령이요 미륵불이 되는 것이네.

태을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

태을주는 천지어머니의 젖술(도전 2:140:9)이라 했으니 곧 생명의 기운을 받아먹는 것을 말하네. 태을이란 진리와 생명의 근본자리이니 곧 하나님이란 말이요 태을주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먹는다는 것이니 이는 성경상의 생명과일을 먹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네. 불사약 불로초를 먹는 것이지.

태을주의 권능(도전7:75:5)을 한번 보세. 만사무기태을주(萬事無忌太乙呪) 만병통치태을주(萬病通治太乙呪) 소원성취태을주(所願成就太乙呪) 포덕천태을주(佈德天下太乙呪) 광제창생태을주(廣濟蒼生太乙呪) 만사여의태을주(萬事如意太乙呪) 무궁무궁태을주(無窮無窮太乙呪)라 했네. 바로 감로해인의 권능이네.

대반열반경 검수품에는 감로(甘露)를 불사약(不死藥)이라고 했네. "삼십삼천삼묘 감로불사지약(三十三天上妙甘露不死之藥): 삼십삼천 미륵불이 내려 주시는 감로는 불사약이다"

이는 미륵불의 감로수요 정도령의 감로해인이요,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이슬성신일세. 대두목(미륵불/정도령/이긴자 구세주)을 만나야 불사약 불로초를 먹을 수 있을 것이네. 증산선생으로부터 태을주를 넘겨받은 안내성이 마지막에 감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게. 감나무는 감람나무요 곧 이긴자이니 이긴자라야 이슬성신 감로해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일세.

판 밖은 증산 문도의 밖이라는 뜻이네

너희들이 내(증산선생)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여도 반 도통은 되었느니라(도전3:18) 하였네. 이는 너희들은 내(증산선생)가 누구인지를 모르다는 뜻이네. 또

마지막회

# 증산선생과 대두목

### 81궁 대두목은 7년 옥고를 치르시고 감로해인 이슬성신을 부여 주어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시며,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러네

한 '저것들 다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문을 열면 불을 보고 깔다구와 하루살이가 막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도전 6:65:8)'도 같은 의미네.

'태도님(증산선생의 부인)이 "사람, 사람, 사람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으로 사람이 없구나." 하시며 크게 탄식하시니라(도전11:61 참사람이 없구나)', '태도님께서 치성 때가 되면 항상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혀를 꼰꼰 차치며 "아야, 우리 집(증산선생을 신앙하는 도문)에 검불 참 많이 모이다 왔구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흰데기 하나 없구나!" 하시고, "박혀 있는 늪이나 온 늪이나 똑같다. 흰데기 하나 가릴 수 없구나. 너희들 중에서는 종자 하나 건지기 힘들다" 하시니라(도전 11:91)'

이런 말이 약 100여 년전 증산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현재 증산선생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게.

그래서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도전2:134)고 하는 것이네. 이 죄악세상의 판 밖은 물론이거니와 나(증산)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증산선생을 신앙하는 문도)의 도관(알음알이에 빠진 도관) 밖에서 진인(참사람, 대두목)이 나와서 진법을 펼친다는 의미일세. 마찬가지로 미륵불이 가사 장삼 입고 출현하는 것이 아님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참사람은 대두목이네

'성경신 석자로 닦으며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니라(도전11:277) 라고 하였네. 자네는 참사람을 만났는가? 참사람이 무엇일지 의미하고 누구인가? 참사람은 곧 진인(구세진인)이니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 이긴자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이네. 이윤의 도수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이 좌정(마음속에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으셨어요. 신인합일 되신 분이요, 무극대도를 완성하신 분이요. 15진주가 되신 분이요. 인류가 그토록 기다린 바로 그분 주인공 대두목을 말하는 것일세. 대두목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천국 극락 지상선경을 만들고자 나서서 천지공사를 행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판 밖의 남모르는 법(하나님 마음 법, 부처님 마음 법)이라 하고 진법이라 하는 것이네. 감로 이슬성신으로 마귀를 죽여 없애는 것이지.

미륵불 대두목은 불기 3007년에 출세하네

'석가가 삼천 년 도수인데 삼천 년이 곧 물러간다(도전4:47)'고 하였네. 이는 불기 3000년이 지나야 미륵불이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네 증산선생은 1871년 신미생으로 불기 2898년 나시고 신축년 1901년(불기 2928년)에 도통했으니 석가의 삼천 년 도수가 끝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니 미륵불이 출세할 때가 아님을 말하며 그래서 사람 몸이 필요한 것일세.

미륵불은 미래불로서 양피(신미생)로 온다고 하지 않는가. "喻如羝羊 是故名祖: 비유컨대 숫양과 같다. 그러므로 이름해서 조(祖)라 한다(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 4-5)" 미륵불은 북방불기 3007년(1980년)에 출현하신다네. "三千年後 名三世明燈 悉能現一切如來本事海 知七日後 佛當出現: 삼천 년 후에 삼세(과거 현재 미래)의 불을 밝혀 이름을 내어 일체 여래의 근본의 일인 해인(海印)을 능히 나타내어 보여 준다. 다시 칠일(7년) 후에 부처가 마땅히 출현한다(화엄경 70권 입법계품 29-10)" "已經日月年載: 일과 월은 년으로 적는다(화엄경 七九卷)" 석가모니는 갑인생으로 불기 3000년이 1973년 계축년이고, 1980년이 불기 3007년이 되는 것일세. 또한 미륵불은 50세에 대도를 성취하시네(화엄경 42권 십정품 27-3).

결론을 말하면 불기 3007년인 1980년에 나이 50에 도통을 하시어(이윤의 도수) 미륵불로 출세하는데 신미생(1931년)이라는 결론일세. 이분이 바로 대두목일세.

미륵불 정도령은 원래 세 분으로 나오신다네

삼천(三遷)이라야 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도전6:64:8)라 하였네. 하나님의 신이 세 번 옮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 차례로 세 분이 온다는 의미이네.

미륵불 출현의 비밀은 이자삼점(伊字三點)(열반경/비밀장)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일세. 세 분이 함께 나타난 이름도 아니요 각기 따로 달리 나와서 천지공사를 하는 것도 아닐세. 중간에 한 사람은 여자라서 세상에 나서지 않네(증일아함경 12권 삼공양품22). 그래서 두 사람이 되는 결세. 수운선생이 말년에 '더디구나 더디구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구나' 라고 하였으니 8년 뒤에 증산선생이 올 것을 미리 말하였고, 증산선생도 천지공사 끝난 후 내 뒤에 두 사람이 더 온다고 하였으니 곧 72궁 묵운과 81궁 금운을 말함이고요, 72궁 묵운도 81궁을 모처에 모셔 놓았다 하셨네. 81궁으로 오신 분은 81궁으로 끝이니 내 뒤에 더 이상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네. 6도3락에 81궁 이상은 없으니 말일세.

田(전)은心田(심전)이라네

그리고 격양유록에 나오는 '이재송송 송하지 이재가가 가지 이재전전 도하지'에서 앞의 들은 이미 지난 일이니 말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의 稜在田田(이재전전)의 전을 대전(태전)으로 알고들 있네만, 천만에 말씀이네. 전은 心田(심전)이요 田(전)자 속에 십(十)자가 있으니 하나님 마음자리(태을) 또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분 즉 대두목을 말하는 것이네.

'콩밭도수'라 해서 피란은 콩밭두둑에서 한다고 하는데(도전7:43:2) 그 콩밭은 충청도 대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 곧 대두목을 뜻하네. 격양유록에도 避亂之本都在心(피란지분도재심)이라 하고 있네. 피란은 다 마음에 있다는 말로서 하나님 마음을 의미하네. 찬송가에도 '피오너'라는 가사도 있네. 피란은 구세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대두목 구세주 구세진인 15진주 정도령 삼재 미륵불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네. 그래서 참사람(진인) 대두목을 만나야 한다는 게지. 감로해인 이슬성신을 임의용지 하시니까, 마귀를 죽이는 생명의 기운, 영원한 생명의 영을 부여 주시니 감로해인 이슬성신을 받아 먹으면 곧 태을주가 되는 것일세. 친구여, 우주개벽 천지개벽을 말하고 그때 살기 위해 태을주를 읽는다고 하니 마음속에서 천지개벽을 이루면 지축과 우주의 축이 수천만 번 바로 설지라도, 아니 우주가 풍가투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도 없네. 이미 시공을 초월한 빛의 세계에 들었으니 말할세. 나는 오직 마음을 뿐 뿐이라(도전3:212:9)라 하였네. 이 길은 오직 마음으로 가는 길일세.

결론

결론적으로 81궁 대두목은 진인으로서 신미생으로 오셨으며, 이윤의 도수로 50세에 성도하시고 마구니가 되는 가짜 구세주의 정체를 밝히고 내치시며, 그 과정에서 문왕의 도수로 7년 옥고를 치르시게 되네.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시며, 감로해인 이슬성신을 부여 주시어 마귀(사망의 신)를 죽여주시다네. 공산주의를 없애시며,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시고,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시며,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신다네. 계속 풍년 들게 하시며,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고 사람이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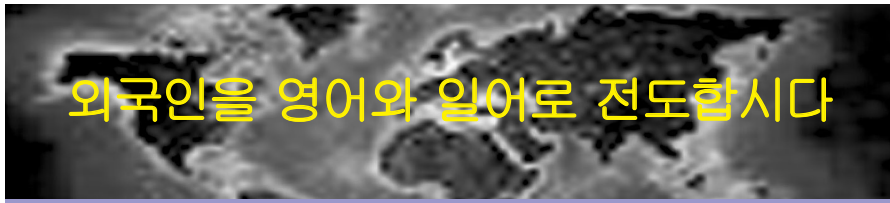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얇게 파면 죽나니 깊이깊이 파라 하느니라(도전5:263:16)고 하였네. 하나님 입장에서 깊이 파라는 말일세.

창 밖에 심어야 밝은 달이 휘영청 뜬구나. 임의 얼굴, 웃으시는 모습이라. 아! 보고픈 임이여! 그리운 임이여! 이 어둠을 다 삼키소서. 우주 삼라만상을 그대로 빛이 되게 하소서.

친구여! 이 같은 아반삼경에는 대문 빗장을 잘 만져 보시게. 혹여 밤손님이 들면 검은 구름을 지어 저 밝은 달을 가릴까 두려우이.

친구여! 어떤가? 지금 그대 창 밖에 둥근 달이 환히 떴는가? \*

박명하 / 분부제단



## 1981년 8월 18일 이긴자 구세주가 승리제단에서 발표한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 What was the Victor Christ's Proclamation on 18th August 1981 at SeungNiJeDan?

#### 1981年8月18日, 勝利者, 救い主が勝利祭壇で発表された公約はどのような内容でしょうか?

1. 나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없애고, 북한으로부터 가해지는 전쟁의 위협을 영원히 제거할 것이며 마침내 남북통일을 이룰 것이다.

I will sweep away communism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then root out the potential threat of war from North Korea forever and finally reunify Korea.

私は地球上で共産主義をなくし、北朝鮮から加えられる戦争の威しを永遠に除去することであり、ついに南北統一を成し遂げるだろう。

2. 한반도를 향해 불어오는 태풍을 막고, 장마기간인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내리던 폭우를 못 오게 하여 남한을 매년 풍년 들게 할 것이다.

I will prevent typhoons from advancing towards Korean Peninsula, stop heavy rain during a rainy season from 15th of June to 15th of July every year. So, I will allow South Korea to have an abundant harvest annually.

韓半島に向かって吹く台風を防ぎ、梅雨の期間である6月15日から7月15日まで雨がふらないようにして、毎年、韓国を豊作になるようにする。

3. 지금까지 이긴자의 예언은 이루어졌으며, 머지않아 이긴자에 의해 통일대박이 이루어질 것이다.

So far, the Victor Christ's Prophecies have come true and the 'Reunification Bonanza' will be realized by Him sooner and later.

今まで勝利者の予言は成し遂げられたし、遠からず勝利者によって統一が成し遂げられるだろう。\*

#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마귀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죄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사망의 요소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선악과다

## 조희성 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 . . . 이것이 도통이다 . . . . .